**마2027 Note**

**◆도우미: 자기비하와 교만/큰 자와 작은 자**

자기비하와 교만/큰 자와 작은 자

1.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0203. 아무것도 다툼(에리데이아:음모,당쟁,다툼,쟁투)이나 속이 빈 허세를 통해서 행하여지게 하지 말라, 대신에 생각의 낮아짐으로,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보다 다른 이를 더 낫게 여기게 하라.

빌0204. 그 자신의 일들 위에서(입장에서) 낱낱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들 위에서(입장에서) 낱낱의 사람을 또한 바라보라.

Ω빌0205.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있었던 이 생각(프르네오:훈련을 하다,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흥미를 가지다,애정을 두다,관심을 기울이다,주목하다,생각하다,간직하다)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빌0206. 하나님의 형상(본질,모양/ 모르페:형상,본성,형태,모양,외형) 안에서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강탈(하르파그모스:강탈,약탈,강도)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빌0207. 대신에 아무런 명성이 없는 것으로 그분 자신을 만드시고(케노우:텅비게 하다,격하시키다,중성화 하다,그릇되게 하다,쓸데없게 하다,영향력이 없게 하다,헛되게 하다,헛되다), 그분 위에 종의 형상(본질,모양/ 모르페:형상,본성,형태,모양,외형)을 취하시어, 사람들의 모습(호모이오마:형태,닮음,유사)으로 되셨느니라,

빌0208.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만듦새(스케마: 형상,외부적인 조건,형적) 안에서 발견되시어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셨으며, 또 죽음에까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청종하게 되셨느니라.

1. **큰 자와 작은 자**

Ω마1801.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오니라, 여쭈되, 천국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이니이까?

Ω마1802. 이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자기에게 부르시고, 그를 그들 중앙에 세우시니라,

마1803. 그리고 이르시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바뀌지 않으면 또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왕국에로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마1804.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누구든지, 그가 천국왕국에서 가장 위대하니라.

Ω눅0946. 그때에 그들 중의 누가 가장 위대할 것인가 하고, 그들 사이에 추론이 일어나니라.

눅0947. 이에 그들 마음의 생각을 인지하시고 예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 그를 그분 곁에 세우시니라.

눅0948.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내 이름의 권위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는 너희 모두 중에 가장 작은 그 자, 바로 그가 큼이라.

Ω눅2224.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여겨지는지, 그들 사이에 다툼이 또한 있으니라.

눅2225.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이 그들 위에서 주권을 행사하느니라 [퀴리유오: 통치하다,주(主)가 되다,지배하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엑수씨아조: 조정하다,조종하다,권위를 발하다,권세 아래 가져오다) 저들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유에르게테스: 선행자,박애주의자,자선가,은인,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느니라.

눅2226.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이 되지 않느니라, 대신에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그 자, 그로 나이가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게 하라, 머리인 그 자로 섬기는 자와 같이 되게 하라.

눅2227. 이는 누가 더 위대함이냐,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냐, 아니면 섬기는 그냐?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그와 같이 너희 중에서 있느니라.

1. **천국 왕국의 역설**

마2311. 너희 중에 가장 대단한 그는 너희 종(디아코노스: 시종인, 시중드는 사람, 선생, 목사, 집사)이 되느니라.

마2312. 그리고 자신을 드높이는 누구든지 낮추어지느니라. 또 자신을 낮추는 그는 드높여지느니라.

Ω막0935. 이에 그분께서 앉으셔서, 열둘을 부르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약 누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그는 모든 이들의 마지막과,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Ω약0109. 낮은 지위(계급)의 형제로 하여금 그가 드높여지는 점에서 기뻐하게 하라.

약0110. 그러나, 부한 자는 그가 낮아지게 되는 점에서 기뻐하게 하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지나감이라.

약0410. 주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들어 올리시느니라.

1.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약0406. 그러나 그분은 더 많은 은혜(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저항하시나(안티탓쏘마이:반대쪽에 서다,반대하다,저항하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Ω벧전0505.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자신들을 장로들에게 복종시키라, 그뿐 아니라, 너희 모두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자기비하로써 옷을 입히라, 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맞서시고(안티탓쏘마이:반대쪽에 서다,반대하다,저항하다),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호의)를 주심이라.

잠0334. 분명코 그분은 냉소자들을 냉소하시느니라, 대신에 그분은 비천한(아나브:억압된,마음이 온화한,겸손한,비천헌,온순한,가난한) 자들에게 은혜(호의)를 베푸시느니라.

잠1102. 교만이 오면, 그때에는 수치가 오느니라, 그러나 비천한(낮아진)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310. 오직 교만에 의해서는 다툼이 오느니라, 그러나 잘 충고를 받은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1403. 어리석은 자의 입 안에는 교만의 회초리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느니라.

잠1619.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기를 낮추는 영(靈)에 속해 있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약탈품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느니라.

잠1812. 무너짐 전에 사람의 마음은 오만하니라, 그리고 명예 전에 자기비하가 있느니라.

잠2825. 교만한 마음에 속하는 그는 다툼을 휘젓느니라, 그러나 자기의 신뢰를 여호와 안에 두는 그는 기름지게 되느니라.

잠2923.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게 데려가느니라, 그러나 영예는 영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떠받치느니라.

1. **겸손**

사6602.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있어 왔음이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가난하며 회개하는 영(靈)에 속하고 내 말에 떠는 바로 그에게. 내가 시선을 돌릴 것이니라(나바트:열심히 바라보다,골똘히 바라보다,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하다,보다,간직하다,여기다,주의하다,존중하다).

롬1216. 서로를 향해 같은 정신을 가지라, 높은 것들에 주의하지 말고, 대신에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라. 네 자신의 자부심(공상)들 가운데서 지혜로워지지 말라.

잠1533. 여호와를 무서워함이 지혜의 교훈이니라, 그리고 영예 전에 자기비하가 있느니라.

잠2204. 자기비하와 여호와를 무서워함에 의해(자기비하와 여호와를 무서워함의 결과로써) 재물(부)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1. **교만**

Ω딤전0617. 이 세상에서 부(富)한 자들에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휲셀로프로네오:정신적인 면에서 고상하다,거만하다,높이다) 말 것을①, 또한 불확실한 재물들 안에서 신뢰하지 말고, 대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파레코:가까이 잡다,출석하다,제공하다,베풀다,전시하다,비치하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것을②.

딤전0618. 앞으로 올 때를 대비해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 선한 기반(데멜리오스:밑에 둔 어떤 것,기초,기반)을 창고에 쌓아 올리면서(아포데싸우리조:저장하다,곳간에 쌓아두다), 그들이 선을 행할 것을③, 나누어 주도록 준비되어 있고(유메타도토스:주기 좋아하는,인색하지 않은,관대한), 기꺼이 교통하면서(코이노니코스:교통하는,자유로운,기꺼이 교통하는) 그들이 선한 일들에서 부요할(플루테오:부하게 되다,물질이 많아지다, 풍부하다,부요하다) 것을④ 명하라(파랑겔로:전언하다,명하다,선언하다).

시1203. 여호와께서는 모든 알랑거리는 입술들을①, 그리고 "우리의 혀로써 우리가 압도할 것이니라, 우리 입술들은 우리 자신 것이니, 우리 위의 주(主)는 누구인가?" 라고 말했으며,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② 잘라내시나이다.

시1827. 이는 당신께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민족을 구하실 것이나, 오만한 눈(모습)들을 아래로 데려가실 것임이니이다.

시3123. 오, 너희 그분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여호와께서는 신의가 두터운(믿음이 굳은)자들을 보존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답례하심이라.

시7505. 너의 뿔을 높이 드높이지 말라, 뻣뻣한(아타크:뻔뻔스러운,오만한,통탄할 일,완강한) 목[짭바르:(짐들이 묶여지는 곳으로서의) 목의 뒷부분,목]으로써 말하지 말라,

시9402. 당신 땅의 심판자시여, 당신 자신을 일으키소서(나사:받아들이다,일어나다,취하다,떠받치다,일으켜세우다),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게물:대우,행동,봉사,보답,혜택,공적,당연한 상벌,그가 준,보수,보상)을 돌려주소서(슈브:돌아가다,돌아오다,다시,대답하다,다시 운반하다,다시 불러오다,다시 주다,지불하다,보답하다,회복하다,다시 갚다,보상하다,회복시키다,만회하다,돌이키다),

잠0616. 이들 여섯의 것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일곱은 그분께 혐오스러운 것이라.

잠0617. 교만한 바라봄과, 거짓말하는 혀와, 결백한(무해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잠0618.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과, 해악에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잠0619.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씨 뿌리는 그라.

잠0813.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성질이 뒤틀어진 입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잠1525.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실 것이나, 그분께서 과부의 지계석(地界石)을 공고히 하실 것이니라.

잠1605. 마음이 교만한 낱낱의 자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라, 비록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처벌 받지 않지 않느니라.

잠1618. 교만(가온:오만,탁월,영광,화려,교만,부풀음)은 파멸 앞으로 나아가며 또 오만한(고바흐:의기양양,위엄,오만,탁월,거만,높음,높은,고상함,교만) 영(靈)은 넘어짐(킷솨론:비틀거림,파멸,넘어짐)의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 나의 목표는 왕좌인가 십자가인가 – 변승우 목사**

1. **나의 목표는 왕좌인가 십자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생명을 내어주셨다.

권위는 왕좌에 앉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라고 주어진 것이다.

마귀의 목적 : 보좌

예수님의 목적: 십자가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요0739. (그러나 그분 위에서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에 관해, 그분께서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이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음이라)

Ω요1216. 이것들을 그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 이것들이 그분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것과① 그들이 이것들을 그분께 행한 것을② 그들이 기억하니라,

Ω요122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니라, 이르시되, 시간이 왔으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하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하심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세례요한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사도바울의 죽음

이들을 하나님은 왜 보호하지 않으시고, 죽게하셨는가?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의 형제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허용하시나,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Ω마2022.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라, 너희가 청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에서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받는 그 침례로 침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여쭈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 영광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마시려느냐?

우리의 시각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누가 크냐 하며 우리는 십자가는 거절하고(베드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좌를 원한다.

부자청년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넘겨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고후0408. 주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항상 지니고 다니기(페리페로:지니고 다니다,갖고 다니다,앞뒤로 운반하다,운반하다)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통을 당하나 그럼에도 압박당하지(스테노코레오:가까이 에워싸다,속박하다,괴롭히다,제한하다) 않으며, 우리가 당황하게 되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며,

고후0409. 핍박을 당하나 버려지지 않으며, 내던져지나 무너지지 않노니,

고후0410.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0411. 이는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로 넘겨짐이라.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지게 하려 함이라.

고후0412.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1. 부흥이 우리 목표가 되면 안된다.

부흥을 일으켜도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1.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다

부흥을 꿈꾸는 자 보다, 변화되는 자가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